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소셜 시큐리티 재원 1년 더 빨리 고갈 우려
- CNN Business: 자동차 구입 시점, 40년만에 최악이다

[미국 금융]

- WSJ: 지역 은행의 경우 부채가 많으면 문제는 줄어들까?
- WSJ: 사우디 등 감산 발표 →유가 상승 →다우 지수 상승

[부동산]

- CNBC: 미 주택 가격, 예상 외 상승세...모기지율 떨어진 탓

[글로벌 경제]

- WSJ: 세계은행,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 위축” 경고
- CNN Business: 미·중 기술 경쟁속에 중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보복성 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신제품 없는 소매업체, 소비자들 “쇼핑 지루하다”
- TechCrunch: Z세대 크리에이터들, Fanflix로 수익 낸다
- NYT: 테슬라, 1분기 판매량 늘었다...가격 인하 효과

[보고서]

- PWC: 소비재(CPG) 기업에 대한 3가지 핵심 고려 사항
- 모건스탠리 에쿼티 전략: Weekly Warm-up: What's the Mess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Real Time Economics: Social Security

미 소셜 시큐리티 재원 1년 더 빨리 고갈 우려

- 재원 고갈 빨라 지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강한 인플레이, 생산상 성장 약화 탓이라는 것.
- 재원이 불충분해지는 해는 2034년부터이며 의회의 지원 조치 없으면 그 시점 이후에 수혜자는 80% 정도만 받는 게 된다.
-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부머의 은퇴 물결이 이른바 사회보장을 받는 은퇴자, 그들의 사후 가족들, 장애인 혜택을 줄이게 되는 위협이 되고 있다.

CNN Business: This is one of the worst times to buy a car in decades.

Here's why

자동차 구입 시점, 40년만에 최악이다

- 공급망이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새 차나 중고차 구매 시점으로는 최근이 최악이다.
- 자동차 거래 가격은 지난 35년간을 비교하면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빠르고 크게 오른 것으로 연방 노동청 수치는 밝혔다.
- 신규 및 중고 자동차 소비자 가격 지수(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거래 가격의 평균 변화)는 4년 전인 2019년 보다 더 올랐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For Regional Banks, Does More Debt Mean Fewer Problems?

지역 은행의 경우 부채가 많으면 문제는 줄어들까?

- 핵심은 은행이 소지하거나 발행하는 장기 부채(채권)의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안이다. 오늘날 이 부채 요건은 JP모건 체이스나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자산이 7천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에만 적용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규제 당국이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이고 규모가 더 작은 은행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형 은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표준의 일부이다. 이것은 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규제 당국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아래와 같다. 즉, 정부가 파산한 은행을 자본화할 필요가 있을 때 소멸되고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가적이고 완화적인 부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helps regulators with the job of resolving a troubled bank by providing an extra, cushioning layer of debt that can be wiped out and converted into equity in the even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recapitalize a failing bank.)
- 희망사항은 그러한 부채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 정부는 납세자나 예금 보험 기금으로부터 자금 수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WSJ 기사

WSJ: Dow Industrials Inch Up as Oil Prices Jump

사우디 등 감산 발표 →유가 상승 →다우 지수 상승

- 투자자들이 지난 주말 사우디 등이 갑작스런 감산 발표를 하자 오일가에 주목하면서 다우존스는 목요일 상승했다. 이들 원유 생산국가들은 5월부터 매일 수백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다.
- 일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인데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중앙은행에 좋은 상황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4월 이래 가장 큰 일일 상승세로 6.1% 상승한 \$84.76로 거래되고 있다. S&P 500 에너지 지수는 4.7% 상승했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Home prices suddenly jump after several months of declines 미 주택 가격, 예상 외 상승세...모기지율 떨어진 탓

- 몇 달간 떨어지는 추세였던 미국 주택 가격이 지난 2월 0.16%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 시장 50개 중 39개 시장에서 2월 주택 가격이 올랐고, 현재 주택 가격은 지난 6월의 최고치보다 2.6% 낮은 수준이다.
- 이는 모기지율이 떨어지면서 올해 초부터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율이 7%를 넘겼었지만, 12~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며 2월 기존 주택 매매가 무려 14.5% 늘었다.
- 한편 지난 2월 판매 가능한 주택 수는 작년 5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떨어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7% 낮은 상황이다. 봄을 맞아 수요는 느는데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가격 상승 압박을 더하고 있다는 것.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orld Bank Warns of Lost Decade for Global Economy 세계은행,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 위축” 경고

- 물론 지난해 전세계 각 정부들은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새로운 법규 시행을 발표했는데 그 의도는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인력을 확대할 의도였다. 그러나 충분치 못했다.
- 그러나 러시아 전쟁, 팬데믹 사태, 고물가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은행은 세계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경고했다.
- 세계 은행은 경제 발전이 거꾸로 된 이유로는 노동력 고령화, 투자 약화, 생산성 둔화를 지적하면서 향후 10년간 성장을, 이전의 평균 이상으로 회복하려면 가열찬 집단적 전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즉, 전세계적으로 구조적 성장 둔화가 진행중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 글로벌 잠재 성장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은 2020년대 남은 기간에 30년 최저치를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은 2.2% 위축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2000년부터 10년간은 플러스 3.5%,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2.6% 성장했었다).

WSJ 기사

CNN Business: Micron Technology: China probes US chip maker for cybersecurity risks as tech tension escalates

미·중 기술 경쟁속에 중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보복성 조사

- 이같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 조사는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북경 정부에 핵심 기술 판매를 제한한 상황에서 보복성 조사 성격을 띄고 있다.
- 중국의 사이버 공간행정국(CAC)은 중국내 마이크론에 의해 판매되는 생 산품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
- 이같은 조치의 의도는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 보안을 확인하고, 숨겨진 상품 문제 때문에 야기된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막고, 국가 안보를 유지할 목적이라는 것.
- 새 총리의 외국이 기업들에 좋은 환경 제공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의제에 부합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지난달 당국은 미국 기업 정보 회사인 Mintz Group의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지 직원 5명을 구금했고, 며칠 전, 베이징에서 딜로이트의 영업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켰고 국유 부실 채권 관리자를 감사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3,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at Style, Again? How Shopping Got So Boring

신제품 없는 소매업계, 소비자들 “쇼핑 지루하다”

-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팬데믹 기간동안 신제품 출시를 줄이고 인기 상품에 의존하면서 다양성이 줄어들어 “쇼핑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시장 조사 업체 Circana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신규 일반 상품 품목이 13% 줄었는데, 그중 미용, 신발, 가전제품, 완구 등에서 가장 큰 감소세가 나타났다.
- 이는 업체들이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지출 둔화, 공급망, 팬데믹 등 경제적 불확실성 앞에 신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신제품의 부족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서 최근 휴일 시즌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되었고, 최근 공급망이 정상화되며 지난 시즌의 쌓인 재고도 해소된 만큼 올해는 점차 신제품 경쟁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TechCrunch: Thousands of Gen Z creators are using Fanfix to monetize content and interact with fans

Z세대 크리에이터들, Fanfix로 수익 낸다

- 틱톡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메타가 월간 릴스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큰 인기를 얻더라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던 Z세대 크리에이터들에게 Fanfix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 Fanfix는 2021년 설립되어 3천 명의 크리에이터와 1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구독자 멤버십을 만들고 팬들과 채팅, 개별 영상 통화 등으로 소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TechCrunch 기사

NYT: Tesla Sales Rose in the First Quarter

테슬라, 1분기 판매량 늘었다...가격 인하 효과

- 테슬라가 이번주 일요일 지난 1분기 42만 3천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지난 4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판매 성과를 발표했다.
-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내린 자동차 가격 인하 결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비롯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을 늘려 고객들의 차량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정부의 세액 공제 요구사항을 맞춰갈 예정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90%까지 오르며 회복세이다.

NYT 기사

[보고서]

PWC: Growth in an uncertain economy: three key considerations for CPG companies

소비재(CPG) 기업이 고려해야할 3가지 핵심 사항

업계의 최근 실적은 매출 성장 둔화와 비용 상승이 순마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PWC 분석에 따르면 2020-2021년 4%의 성장률에 비해 소비재 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2022-2024년에 2.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COGS)의 약 7% 증가와 판매 및 관리 서비스(SG&A)의 약 4% 증가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1) 가장 가치 있는 고객에게 집중 2) 민첩하고 효율적인 운영 구축 3) 전략적 관계의 영향력 증대에 힘써야 한다.

1) 가장 가치 있는 고객에게 집중: 매출 성장을 촉진하고 순마진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시장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고객에게 다가가라.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사항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조건에서 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순수익관리(NRM)를 사용하면 가격 책정, 판촉 실행, 거래 투자, 제품 모음 심지어 상업 용어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마케팅 지출 최적화(MSO)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우선 순위 영역에 걸쳐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민첩하고 효율적인 운영 구축: 기업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축하여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조달, 재고 관리 단위(SKU) 및 브랜드 합리화, 가치에 맞는 설계]를 재검토하여 COGS 지출을 간소화해야 하고, [자동화, 우수한 공정, 운영 모델 변환]의 전략적 설계를 통해 SG&A 비용 구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3) 전략적 관계의 영향력 증대: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전략적 관계는 CPG 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 공급업체 및 판매자와의 효과적인 관계는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유형의 협업에는 장기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전략적 관계가 수년에 걸쳐 발전함에 따라 CPG 기업들은 거래 범위 기반 협정에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 작업자들과 함께 선택적인 장기 계약으로 전환했다. 어려운 경제 시기에 기업들이 부담을 분담하고 호황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관계가 가장 탄력적이다.

PWC 기사

모건스탠리 에쿼티 전략 보고서: Weekly Warm-up: What's the Message?

- With major stock indices holding up in the face of deteriorating growth and liquidity, we think the underlying message from broader markets is still defensive.
- The bigger question for investors is whether large cap tech fits that bill and can it continue to hold the S&P 500 up.

모건스탠리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OPEC+ 깜짝 감산에 '시장 충격'...
연말 배럴당 100달러 전망도"**

"미국 대응책 제한적...달러화는 강세"

2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깜짝 감산 결정은 이 기구를 주도해온 사우디아라 비아가 그동안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해 온 만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까지 최고 배럴당 100달러(약 13만1천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들의 감산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재선 유세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연료 가격 상승 우려에 맞서 대응책 마련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